

우리나라 포(袍)와 터키 Sultans'의 의례용 外衣 형태 비교 연구

- 1400~1800년대를 중심으로 -

이 상 은 · 김 영 란*†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A Comparisomal Study between Korean Po and Turkish Sultans' Dress

Sang-Eun Lee · Young-Ran Kim*

Prof., College of Art and Design, Kunkuk Univ.
Instructor, College of Art and Design, Kunkuk Univ.*
(2004. 2. 28. 접수)

Abstract

The dress culture of Korea and Turkey should be necessary to study in view of a similar culture of Korea and Turkey due to similarity of oriental culture. Thus, as two nation's dress is investigate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dress form of two nations are analyzed with cultural background in detail. Also, comprehension is determined for the dress color and texture as well as dress culture.

In this paper, It is investigated theoretically for the function, type, and class of dress. Also, The form of Korean Po are compared to background of Turkish dress and Sultans' dress form. To unify a cultural propagation and dress form, technical, inductive contents analytical method as well as literature review are used in positivism. Subject is limited to the Korean Po and Sultans' dress of Turkey.

As a results, as the nation's dress reflect to culture and society of the nation, Korean dress have some similarity and differences comparing Turkish dress as followings.

In dress form of two nation, rectangular Gil's shape was very similar. Mu's shape was similar too. However, Sultans' dress had outside shape of caftan type and Po had full or partial wrinkles by transforming Mu. Also, Sultans' dress did not have Sup. Korean Po have side slits or back side slits and Jun-Sam but Sultans' dress had only some side slits.

Key Words: form(형태), po(포), caftan(카프탄형), sultan(술탄), culture(문화)

I. 서 론

1. 연구의의와 목적

복식을 한 시대, 사회, 문화 의식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를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통합체이다. 복식은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공존하고 있는 기본요소로서의 문화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조 및 경제적 여건, 기후와 풍토, 생활풍습, 미의 관점, 종교문제 등에 따라 각기 독

*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Kim
Tel. +82-11-9002-0496, Fax. +82-43-236-7004
E-mail : youngna71@hanmail.net

특한 복식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은 고유한 복식을 갖게 되었으며 각별한 관심 속에서 전승되고 있다.¹⁾

해밀턴(Hamilton)에 의하면 복식이란 하위문화 체계로서 특정한 문화를 명시함에 있어서는 독특하지만 표현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보편성을 띠고 있는데 즉, 복식은 세 가지의 기본적이고, 특징적이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문화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술, 사회구조, 관념이 그것이다.²⁾

또한 종교적 이념과 도덕관념은 한 문화권의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복식의 형태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각 지역의 기후, 자원, 기술, 문화 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의복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포(袍)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의례적인 목적과 사회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문화변천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볼때, 복식은 사회변천을 하고 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세계가 점차 교류함에 따라 국부적문화는 외부적 자극에 노출된다는 개념이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인 터키의 Sultans' 복식은 이슬람 종교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포(袍)와 터키 술탄복식을 형태, 기능적인 면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복식문화적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두 나라의 복식형태와 구성방법, 또 색채와 옷감의 사용 등을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 복식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먼저 의복의 형태 및 종류를 고찰한 후 의복의 기능과 형태 및 종류, 우리나라 포의 형태, 터키의 Sultans' 복식의 형태를 살펴보고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아보려 한다. 문화의 전파와 복식의 형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실증적인 방법으로는 기술적, 귀납적, 내용분석적 방법과 문헌조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조사의 범위는 우리나라 전통복식인 포(袍)와 터키의 Sultans' 복식으로 정하였다.

Ⅲ. 이론적 고찰

1. 의복의 형성 요인

복식을 형태별로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은영³⁾의 선행연구에서는 의복의 기능과 형태 관계의 다양성을 물리적 기능에 의한 형태의 결정, 동일기능의 다양한 형태, 동일형태의 기능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Laver(1966)는 의복형태 결정에 작용한 숨겨진 힘으로 미의 원리(attraction principle), 계급의 원리(hierarchical), 그리고 실용성의 원리(utility principle)를 들었다.

복식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 요인은 크게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문화적 요인으로는 생활양식, 미의식, 종교와 도덕 등이 복식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의 총체라 볼 수 있다. 또한 문화는 타문화와의 접촉이나 집단내의 혁신에 의하여 계속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다. 문화의 여러 가지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복의 형태는 대표적인 문화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⁴⁾

2. 의복의 종류

의복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만들어진 과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동물의 가죽을 몸에 맞도록 꿰매어 만드는 봉제의(縫裁衣, tailored garment), 직조한 옷감을 몸에 둘러 입는 권의(捲衣, draped garment),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합쳐져 직조한 옷감을 몸에 맞도록 봉제한 복합의(複合衣, composite type)로 나눌 수 있다.

Mutzel(1975)은 기후조건에 따른 지역별 의복의 인체보호기능을 기준으로 트레이퍼리형-카프탄형-관초형-튜닉형-바지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Goldenweiser는 문화적 형태에서 “가능성의 제한이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재구성형-포부형-지배적 형태로 분류하기도 하였다.⁵⁾ 그밖에 많은 학설이 있으나 공통적인 특성은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의 의복의 형태별 분류에 의하여 의복을 몸에 착용하는 방법에 따른 형태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은 다섯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⁶⁾

(1) 요의형

요의(腰衣, loin cloth)는 허리에 둘러 입는 형태의 의복으로 끈의 형태이다. 기후가 따뜻한 아열대 또는 열대지역에서 발달하였다. 주로 아프리카, 중앙 아메리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많이 입었으며 이집트의 쉐타가 대표적이다.

(2) 권의형

권의(捲衣)는 하나의 긴 포(布)를 재단이나 봉제 과정 없이 허리에 잡아 어깨에 걸치거나 감싸서 입는 옷으로, 대표적인 권의로는 인도의 사리, 그리스의 히마티온, 로마의 토가 등을 들 수 있다.

(3) 관두의형

관두의(貫頭衣, poncho)는 가죽이나 옷감의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머리를 넣어 어깨에 걸쳐 입는 옷의 종류이다. 몸통과 소매를 꿰매지 않은 형태로 더운 지방에서 많이 입혀졌다. 대표적으로 판초가 있다.

(4) 통형의형

통형의(筒形衣, tunic)는 머리 위로부터 내려 이어 전신이 통형을 이루는 옷의 형태로 관두의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통형의는 관두의의와 같이 머리위에서부터 입는 형태이나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옆을 꿰맸으며, 소매를 달기도 하였다. 통형의는 유럽지역과 몽골지역의 기마민족에게 많이 입혀졌다.

(5) 전합의형

전합의(前合衣)<그림1>는 양쪽 팔을 꿰어 입고 앞에서 여미도록 만들어진 형태로 여미는 방향에 따라 좌입, 우입, 합입 등으로 불린다. 전합의는 입기 편하고 활동적이며 광범위하게 입혀졌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견(絹)생산 문화권에서 특히 발달하였다. 깃, 사각형 소매 그리고 앞 여밈을 고정시키기 위한 허리 띠가 특징적이다.



<그림1> 전합의형 심의 (이재의 초상화) 복식문화사, p.55

Ⅲ. 복식의 형태에 관한 고찰 및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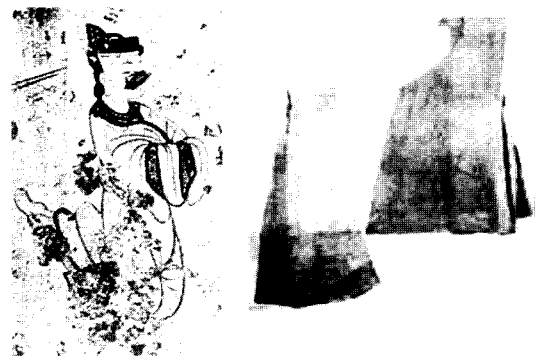
1. 조선 왕의 의례용 외의

(1) 포(袍)와 조선의 복식문화

포는 '석명(석명)'에 "포는 남자가 입었는데, 아래로 늘어져서 발등을 덮고 안옷을 감싸는 옷이다"라고 하였다.<그림2>⁸⁾ 포는 바지·저고리 위에 입는 겹옷으로 예의와 방한의 목적으로 입었다. 고구려고분 벽화인 개마총에는 자색 대수포(大袖袍)를 착용하고 있으며, 각저총·무용총에서는 차를 나르는 사자(捨者)들이 좁은 착수(窄袖)의 포를 착용하고 있어 상하 귀천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가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포의 모습은 백제·신라와 더불어 삼국이 비슷하여 곧은깃(直領)·교임(交襟)·직수형(直垂型)의 것이었다. 원래의 포는 착수의였으나, 차차 의례적인 목적으로 대수포가 나타난다.

고려시대 포의 제도는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의존하는데 왕도 평상시에는 조건(湄巾)에 백저포(白紵袍)를 착용하였다. 백저포<그림3>⁹⁾ 해인사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1997), 성보문화재 연구원은 직령교임(直領交襟)·중거형(重裾型)이며 띠를 매서 입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교로 삼아 외출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관모를 쓰고 포를 입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반비(半臂)계통의 담호와 심의로 상의하상식(上衣下裳式)의



<그림2> 수산리 벽화의 포 (左:道袍型直領, 右:衣型 직령) 한국복식문화사, p.35

<그림3> 백저포 (左:道袍型直領, 右:衣型 직령) 조선왕조 복식사론, pp.224-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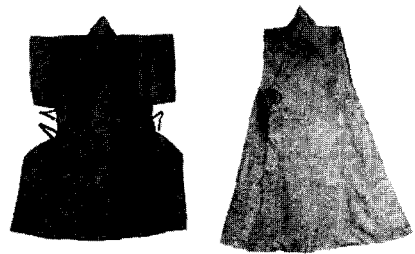
철릭 등으로 저고리 위에 입는 겹옷이며 예의와 방한의 목적으로 입었다. 소매도 처음에는 착수(窄袖)이었으나 차츰 광수(廣袖)로 변하였다.¹⁰ 왕복에는 대례, 제복에 속하는 면류관<그림4>, 곤복, 조복에 속하는 원유관<그림5>, 강사포와 상복에 속하는 익선관, 곤룡포<그림6>가 있다. 이 밖에 국난을 당했을 때는 전립에 용복을 착용하였으며 연거시에는 편복(연복)을 입었다. 왕의 편복은 우리고유의 바지, 저고리 위에 상복의 밑받침인 답호<그림7>¹¹, 철릭<그림8>등을 착용하였으며 일반 사대부들의 편복을 같이 입었다.

임란이후에는 도포<그림9>가 생겼는데 이것은 광수이며 옷자락이 4폭이며 뒤에 전삼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기에는 창 의<그림10>가 있었는데 이것은 소창의, 증치막, 대창의라 하여 역시 외출복으로 착용하였다.

고종 32년(1895년) 3월 을미개혁으로 공사에복으로 두루마기<그림11>만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포는 고려를 거쳐 조선에 들어와서는 남자의 경우 의례적인 것이 되어 사계절에 걸쳐 착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¹²



<그림6> 상복 (세종대왕 어진) 우리옷2천년, p.72



<그림7> 답호 (左:검답호 광주국립박물관, 右:소매없는 답호 석주선박물관) 우리옷2천년, p.72



<그림4> 12류면 12장복 (순종 황제의 어진, 권오창 그림) 우리옷2천년, p.72



<그림5> 강사포, 통천관 (고종황제의 어진)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우리옷2천년, p.72



<그림8> 청철릭 한국복식문화 사전, pp.387-392



<그림9> 도포 (강세황의 자화상) 한국복식문화 사전, pp.387-392



<그림10> 화창의 (홍선대원군) 한국복식문화 사전, pp.387-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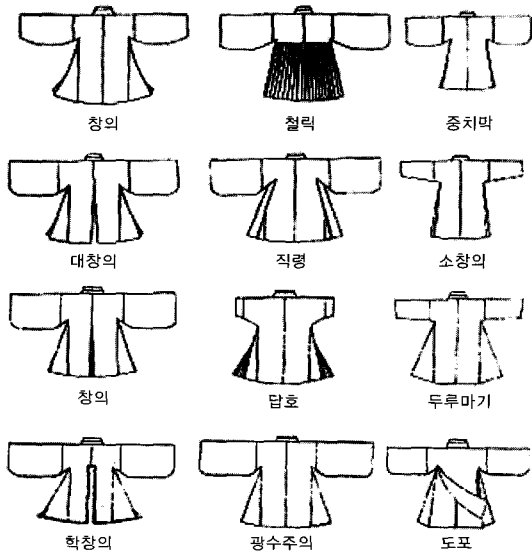


<그림11> 흑색 두루마기 (영왕)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한국복식문화 사전, pp.387-392

(2) 왕의 의례용 외의의 구성과 형태

가) 전체적 구성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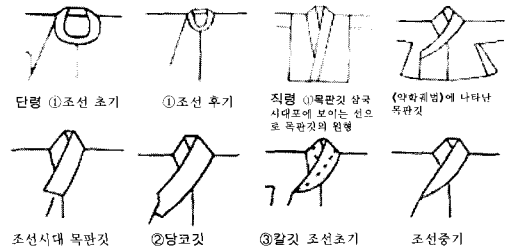
우리나라 포의 종류와 포의 형태와 변천을 보면 다음 <그림12>¹³⁾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포는 소매, 길, 앞, 깃, 무의 형태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중 소창의와 두루마기, 문수사포는 다른 포가 광수인데 비해 착수의 소매를 보인다. 무의 형태는 곧은 직선의 무와 곡선의 무로 삼각형의 형태이나 상의하상식의 철릭은 오히려 하상에 주름을 잡아 무가 보이지 않으며 액주름포와 문수사포는 주름을 잡아서 옆선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12> 포의 뒷모습과 형태
한국복식2천년, p.76

나) 부분적 형태

깃의 형태<그림13>도 목둘레가 둥근형태의 단령과 곧은 형태의 직령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목판깃은 직령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목판깃의 변형으로 깃머리가 동그란 형태의 당코깃은 광해군의 당코깃인 창의와 도포가 있으며, 깃머리가 칼의 모양 혹은 반달모양의 칼깃인데 직령, 철릭, 도포, 창의와 같은 포 중심의 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¹⁴⁾



<그림13> 깃의 형태
현대사회와 패션, pp.112-119

다) 색

포의 색은 왕의 홍색에서부터 신하의 녹색과 청색, 선비의 청렴함을 나타내는 흰색이 있으며 여기에 심의와 학창의는 검정색의 선을 대어 유교적인 독특한 절제미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라) 소재

포의 재료에는 모시, 삼베, 비단,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마) 여밈방법

우리나라 포의 형태는 길에 소매와 무가 붙어서 재단되어지는 특징을 보이며 특히 소매 형태의 변화와 무와 깃의 다양한 형태 변화는 시대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이 트여 옷을 여미는 방식의 카프탄형(전합의형)이면서 오른쪽으로 교차하여 여미는 우임의 형태로 상의와 하의를 입게 되는 상의하상식(튜닉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의류는 뒤트임이거나 옆트임으로 포를 입고 걸을 때의 모습이 동적으로 나타났다.

2. 터키 Sultans'의 의례용 외의

(1) 터키의 복식문화와 배경

전통 복식은 발생·성장의 과정에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민족의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¹⁵⁾ 터키는 지리상으로 동서양을 잇고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의 요지에 해당하며 동서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특히 터키의 문화는 동양과 서양의 것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배경

을 가지고 있다. 7세기경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한 이슬람교(Islam)는 이 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터키 복식의 형태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교는 2대 칼리프(Kalifa) 우마르대에 대정복을 시작하면서 이슬람세계가 동·서로 확대되었고 이후 아바스 왕조(750~1258) 이후 교역의 발달과 함께 고대 오리엔트, 헬레니즘, 그리스도교 및 인도, 이란의 문명 영향 아래 독자적인 이슬람 문화가 형성되었다.¹⁶⁾

칼리프는 대행자라는 뜻의 아라비아어 하리파가 와전된 말이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죽은 후 그가 이룩한 교단국가(敎團國家)의 최고지도자로 뽑힌 아부 바크르가 '신의 사도의 대행자'라고 칭한 이래 '대행자', 즉 칼리프가 이슬람제국의 주권자의 칭호로 되었다. 아바스왕조가 망하자 각지 지방정권의 군주로서 칼리프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칼리프라는 직위의 권위가 저하되었다. 19세기 이후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술탄이 칼리프의 칭호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로마 교황이 전체 그리스도 교도를 대표하고 있듯이 칼리프라고 칭함으로써 술탄이 전체 이슬람교도의 대표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924년에 터키 공화국은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였다.

술탄은 이슬람교의 종교적 최고 권위자인 칼리프가 수여한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로써 코란에서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증시(證示) 또는 권위의 의미로 사용되는 비인격적인 것이었으나, 후세에 특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개인의 칭호로 되었다. 875년 아바스왕조의 칼리프 무타미드(재위 870~892)의 동생이 맨 처음으로 이 칭호를 수여받았으나, 13세기 이후 세속권력의 최고권위를 지니는 이슬람 전제군주의 공식칭호로서 투르크계(系)의 가즈나왕조에서부터 사용되었다. 이 칭호를 실제적으로는 셀주크왕조의 투그릴 베그가 최초로 사용하였고, 소아시아의 루트셀주크왕조, 이집트의 맘루크왕조, 오스만 투르크제국 등이 이 칭호를 습용(襲用)하였다. 이란에서는 지방지사(地方知事)의 칭호로 사용되었고 모로코, 아라비아반도 남부·카슈미르·인도네시아에서는 토호(土豪)나 작은 군주가 정치적 지배자로서 이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는 왕녀의 칭호로도 사용되었다.¹⁷⁾

또한 이슬람의 예술적인 전통은 코란의 교리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¹⁸⁾

(2) Sultans'의 의례용 외의의 구성 형태

가) 전체적인 구성형태

B. Lewis의 이론에 따르면, "코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과 주변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신앙과 현실의 조화를 따르려했다는 것이다.¹⁹⁾

술탄의 복식은 지배자의 옷이기 때문에 일반의 서민들과 그 차이가 확연하다. 아래에 보여지는 그림들은 1400년대에서 1800년대 사이의 술탄의 복식으로 현재 터키의 TOPKAPI PALACE에 소장되어 있는 술탄의 복식들이다. TOPKAPI PALACE는 건축가 "Sinan"이 16세기에 만든 위대한 궁전이다.²⁰⁾

<그림14>은 Sultan "Suleyman"이 금으로 된 왕좌 위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술탄의 복식과 신하들의 복식, 뒤에 장식되어진 배경으로 보아 이 당시의 영화로움과 화려함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붉은색의 소매가 좁은 상의 위에 초록색의 짧은 외투를 걸치고 있으며 그 위에 남색의 조끼를 걸치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조끼는 일반 옷감과 모피가 함께 사용되어져서 겹옷의 역할과 함께 장식적이며 의례적인 분위기를 나타낸 것도 있다.

나) 부분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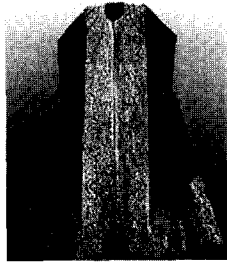
터키 술탄복식의 외형적인 형태는 크게 길과 무, 소매로 나눌 수 있다. 길의 형태는 우리나라 포의 형태와 크게 차이가 없이 직사각형<그림15>이며 길의 옆선에는 무가 달려있는데 우리나라 포의 무와 아주 유사하다고 하겠다. 소매의 형태의 짧은 것<그림16>과 긴 것<그림17>이 있는데 삼나무나 소나무의 솔방울 모양을 도식화하여 짠 두툼한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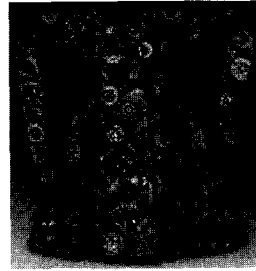
<그림14>
Sultan "Suleyman"
(1558)
TOPKAPI PALACE,
pp.42-47



〈그림 15〉 짧은 소매(메머드 정복자의 카프탄형) 금박, 은박을 넣어 짙 심홍색의 velet TOPKAPI PALACE, pp.4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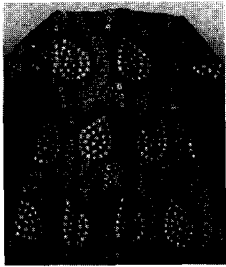
〈그림 16〉 16세기 메머드 왕세자의 카프탄형 TOPKAPI PALACE, pp.42-47



〈그림 19〉 Bayezid II세의 긴소매의 터키 전통예복 TOPKAPI PALACE, pp.42-47



〈그림 20〉 Nigar의 Selim II TOPKAPI PALACE, pp.42-47



〈그림 17〉 오스만 II(1618-1622)-III(1754-1757)세까지 입어왔던 짧은 소매의 카프탄 TOPKAPI PALACE, pp.42-47



〈그림 18〉 Kemha 카프탄 긴 소매와 앞이 터짐 형태. TOPKAPI PALACE, pp.42-47



〈그림 21〉 꽃과 다채색의 TOPKAPI PALACE, pp.42-47

다) 색

색채는 대체로 원색적이며 색의 대비적 조화를 살려 보색적인 대비로 화려함을 이루고 있다. 붉은색의 원색에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마호메트의 승천”에서는 마호메트가 천국으로 승천하는 영적인 웅장함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황금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²²⁾

라) 소재

옷감의 사용은 화려하게 직조된 문양<그림 20>이 정교하며 비옥한 땅의 'hatay' 꽃과 다채색의 잎이 짙은 “Saz” 스타일의 장식으로서 그 위에 금사나 은사로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마) 여밈방식

술탄복식의 여밈 방법은 앞이 트여 있으며 단추로 여머입는 형식과 앞을 마주보게 걸치는 좌입의 특징을 보인다.

크로이 이 술탄복식은 짧은 소매와 그 형태는 우리나라 반비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소매의 끝단을 둥글게 처리<그림 18>한 것이 특징인데 이 고상한 kemha나 실크로 짠 직물은 궁전예술가에 의해 특별히 디자인 되어야만 했고 왕실의 직공에 의해 만들어졌다. Suleyman 1세의 두 아들과 Bayezid 왕세자 Hustafa의 왕세자가 입었으리라 추측된다. 긴 소매<그림 19>는 아주 좁고 타이트하여 보이나 이 소매는 입기 위함보다는 장식적인 소매의 역할인데 그 이유는 소매의 진동 옆에 팔을 끼울 수 있는 부분이 터져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설명한다.

목둘레선<그림 20>은 둥글게 처리하여 목에 딱 맞는 형태로 따로 깎거나 칼라를 달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Nigar에서 제일 유명한 초상화가가 그린 Selim II 세의 초상화로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는 장면이다.²¹⁾

IV. 결 론

한 나라의 복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듯이 우리나라 복식과 터키 복식에 관하여 고찰한 결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

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겠다.

첫째, 형태에 있어서 길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또한 무의 모양도 우리나라 포와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외형적인 형태는 앞이 전개되는 카프탄형이라는 것이다. 단, 포는 무의 모양을 변형하여 전체나 부분을 주름을 잡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포는 섶이 있기도 하였으나 술탄복식은 섶이 보이지 않으며 포가 뒤트임이 있거나 옆트임이 있고 도포에 전삼이 달려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술탄복식은 약간의 옆트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매의 모양을 보면 우리나라 포의 소매는 아주 다양하여 짧은 것에서부터 좁은 소매 넓은 소매에 이르기 까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다. 터키 술탄 복식의 소매는 짧은 것과 긴소매로 나타나는데 긴소매는 입기 위한 것 보다는 장식적인 의미로 어깨에 걸쳐 늘어뜨리는 효과였다는 사실이다. 유사점은 소매에 진동이 있어 소매와 길을 연결하여 재단하고 있다는 것과 겨드랑이 밑을 둥글러 곡선지제도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목둘레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포에는 것이 따로 재단되어 달려지게 되며 그 형태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둥근형과 브이넥으로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술탄 복식은 깃을 달지 않았으며 목둘레도 라운드형의 둥근형이면서 바이어스 처리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옷감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포는 실크에서부터 면, 마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술탄의 복식은 화려하게 직조된 실크로 제작되었으며, 여기에 장식되는 옷감은 금사, 은사, 자수 등이 그 기법으로 쓰였다.

다섯째, 색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포는 대체로 단색과 무채색의 조화로써 설명될 수 있다. 여러 색을 조합하기 보다는 단색으로 처리하여 그 느낌이 터키의 술탄 복식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표현한다.

여섯째, 여미는 방식을 보면 우리나라의 포는 고름을 매어 입는 방식이 대부분이나 술탄의 복식은 매듭단추를 사용하여 서양의 단추처럼 여

미는 방식을 취하며 또한 여미지 않고 앞이 터지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의 포가 우임인데 비해 술탄의 복식은 좌임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나라의 복식을 비교하여 연구 한 결과 왕의 포가 장엄함과 권위, 절제된 것 이라면 술탄 복식은 아주 화려한 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술탄 복식이 그 당시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라서 양쪽의 문화가 혼용되어 복식의 형태는 단순한 평면형의 카프탄형이나 그 장식 기법의 사용과 표현에 있어서는 서양의 문화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포가 전통의 예복으로써 지금도 널리 입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술탄의 복식도 터키의 전통예복으로 입혀진다는 것이 아주 흥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과거의 복식은 우리에게 고전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을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포와 술탄의 복식은 동양의 카프탄형을 취하면서도 그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 관습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복식의 형태에 치중하다 보니 모자나 장신구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그에 관한 후속 연구가 있길 기대하여 본다.

참고문헌

- 1) 석주선 (1992). *전통생활의 미*. IBM, p.20.
- 2) Hamilton, J. A. (1987).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 Textiles *C.T.R.J. 6(1)*. Fall, pp.1-7.
- 3) 이은영 (1998). *복식의장학*. 교문사, pp.31-33.
- 4) *Ibid.*, pp.31-38.
- 5) 류기주 (1990).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 형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p.28-34.
- 6)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공저 (1999). *복식문화*. 교문사, pp.22-26.
- 7) *Ibid.*, pp.5.
- 8) 유희경, 김문자 (1999). *한국복식문화사*. 교문

- 사, p.35.
- 9) 해인사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1997).
성보문화재연구원.
- 10) 이상은 (1992). 조선왕조 복식사론. 동방도서,
pp.242-253.
- 11) 문화관광부 (2001). 우리옷2천년. 미술문화,
p.72.
- 12)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 사전. 미술문화,
pp.387-392.
- 13) 김미자 (1996). 우리나라 포의 종류와 변천. 한
국복식2천년. 미술문화, p.76.
- 14) 이상은 (2000). 현대사회와 패션. 건국대 출판
부, pp.112-119.
- 15) 황춘섭 (1999). 세계전통복식. 수학사, p.40.
- 16) PASCAL (1997). 세계대백과 사전21, p.12575.
- 17) <http://www.naver.com> 백과사전
- 18) Bernard Lewis, 김호동 역 (2001). 이슬람1400년.
까치글방, p.79.
- 19) Ibid., pp.85-86.
- 20) Ahmet Sensilay, T. (2002). *Turky*. REBAK,
pp.33-37.
- 21) Ilhan Aksit (2002). *TOPKAPI PALACE*. aksil,
pp.42-47.
- 22) Cage, J. (1993). *Colour and Culture*. London:
Thames & Hudson, p.63을 이윤정, 김경인
(2003). 동·서양의 복식에 나타난 노란
색의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의상디자인
학회지* 5(2), p.24에서 재인용.